



구제역 물렸거라~ 5일 광주 북구청 농축산유통팀이 충효동의 한 한우 사육장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의 한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북구청은 소·염소·돼지 등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시 확대, 사교육 강한 수도권 학생 유리

광주·전남, 올해 서울대 수시·정시 합격생 비율 8대 2
학교 따라 내신 편차...최저학력기준 폐지도 지방에 불리

수능 강화, 왜 지방 학생에 불리하나

교육부가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확대'를 주요 대학에 독려한 것을 두고 광주 교육계가 "지방 학생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시제도"라고 불만을 표시한 배경은 뭘까.

답은 간단하다. 수능 영향력 강화로 광주·전남 지역 중·상위권 학생들의 주요대학 진입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수능 성적이 당락을 가르는 정시 모집규모 확대는 입시에서 수능 영향력 강화로 연결된다는 게 정설이다. 이는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광주지역 진학지도 교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여기에는 최근 수년간 광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일정 부분 하락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광주 진학지도 교사들은 "연간 2000~3000만원의 비용을 대며 재수·삼수를 뒷받침해 줄 수 있거나 사교육 비용 격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광주·전남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수능 몇 문제 맞고 틀리느냐로 당락이 갈리는 정시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지방 학생들에게 불리한 입시 변화"라는 말도 나온다.

광주와 전남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위주로 평가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서울대 등 주요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압도적이라는 현실도 정시 확대·수능 영향력 강화에 대한 반감에 녹아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올해 총 95명이 서울대에 등록했는데, 정시는 11명(수시 84명)에 불과했다. 전남의 정시 서울대 등록 인원은 7명(수시 47명)에 그쳤다. 상위권 대학 진학의 지표가 되는 서울대 등록자 규모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한다면 현행 대입제도 유지가 지역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절대적

으로 유리한 것이다.

송덕고 장광재 교사(진학담당)는 "정시 확대로 수능이 강화되면 '있는 집' 부모들은 재수·삼수시켜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고 지방의 목소리는 아예 듣지도 않고 추진하는 입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설월여고 서점권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를 많이 간다.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시 강화는 지방 학생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전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최근 교육부의 입시 기조 변화에 항의하는 논평을 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학사모는 지난 3일 배포한 '수능확대는 시골아이들의 희망을 꺾는 정책이다'는 보도자료에서 "수능은 학교 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사교육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제도"라며 "사교육이 없는 시골 우리 아이들은 수시전형에 희망을 갖고 있다. 대도시 아이들만 생각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상위학교를 가게 해야한다"고 반발했다.

물론 지역에서도 특수목적고·사립고를 중심으로 한 일부 고교에서는 수시 규모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곳도 있다. 수시전형은 준비하는 학생이나 지도하는 교사도 복잡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학교 특성에 따라 수능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율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내신성적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 동아리 활동·봉사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부담스러워 한다.

한편 최근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대학에 요청하는 교육부 방침과 관련해서도

지방 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전교 1등이라도 학교에 따라 내신점수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 최저기준으로 변별해 왔는데, 이런 장치가 사라지면 일부 대학의 경우 출신 고교를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교육청, 유치원·특수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내년 초등학교로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아 중심으로 올 봄부터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는 광주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교실 공기 질 개선을 위해 광주시 전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 특수학교급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유치

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모두 1636개 교실이다.

예비비로 확보한 8억28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학교는 학급수에 따라 최대 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교실면적 대비 공기정화 능력이 1.5배 이상이고 성능 인준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중·고교까지 전면 설치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검토 중이다. /김형호기자khh@

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처벌 다음달부터 과태료 300만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 장치의 상시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는 GPS를 통해 어선 위치를 해경 등에게 송신하는 장치로, 어선들은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부 선장들은 조업금지지역을 침범하거나 조업지역을 다른 선박에 알리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장치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끄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선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 '사범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어업관리단이 어선법 위반행위 단속을 맡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장성 건동광산 인근 땅꺼짐현상 철도공 "호남고속철 영향 없어"

지난해 12월 장성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주변 농지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현상)과 관련, 인근을 지나는 호남고속철도는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일보 12월15일자 6면>

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장성군 황룡면 외룡리 건동광산 인근 지역의 싱크홀 발생에 따른 안정성 검토용역을 지난달 30일까지 시행한 결과 고속철도는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토 결과 철도 하부는 단단한 석회암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암반 중간(지반에서 23~31m 아래)에서는 빈 공간(800m)이 발견됐다.

철도공단은 열차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호남고속철도의 중요도와 사회적 안전의식을 고려해 이달 중 석회암반 내 지하 공간을 채우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3 해질 18:57 달뜨기 ---:-- 달지기 10:02

'한식'
아침에 비 그친 후 찬바람 불고 구름많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비온뒤 맑	9/13	보성	비온뒤 맑	10/13
목포	비온뒤 맑	8/11	순천	비온뒤 맑	11/16
여수	비온뒤 맑	12/16	영광	비온뒤 맑	7/11
나주	비온뒤 맑	9/12	진도	비온뒤 맑	8/10
완도	비온뒤 맑	10/13	전주	비온뒤 맑	9/13
구례	비온뒤 맑	12/14	군산	비온뒤 맑	8/9
강진	비온뒤 맑	10/13	남원	비온뒤 맑	10/13
해남	비온뒤 맑	9/12	홍산도	비온뒤 맑	7/11
장성	비온뒤 맑	9/12			

◇ 바다 날씨

해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5	서~북서	2.0~3.0
	면바다	북서~북	1.5~3.0	서~북서	2.0~3.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2.0	서~북서	0.5~2.0
	면바다(동)	서~북서	1.5~3.0	서~북서	2.0~3.0
	면바다(서)	남~남서	2.0~4.0	북서~북	2.0~4.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59	05:52
여수	22:58	17:44
	06:23	00:18
	18:14	12:16

◇ 생활지수

- 뇌졸중: 보통
- 감기: 보통
- 미세먼지: 한때나쁨

◇ 주간 날씨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	☀	☀	☀	☀	☀	☀
3/9	2/15	7/17	8/20	9/20	7/20	9/18

깊이있고 바른정보 오늘의 신문입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패스트푸드보다 슬로우푸드를 찾습니다.
깊이 있고 바른 정보를 원한다면 매일 신문을 읽습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